

# 소비심리 낙달만에 나아졌지만...

8월 소비자 기대지수 전달보다 6.6P 상승한 91.2

경기·생활형편 안풀려 기준치 100에는 훨씬 못미쳐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소비 심리가 다소 호전됐지만 여전히 경기나 생활형편, 소비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8월 소비자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기대지수는 전달에 비해 6.6포인트 상승한 91.2로 집계돼 4개월만에 증가세를 나타냈다. 소비자기대지수는 3월 99.7, 4월 100.4에서 5월 92.2로 급락한 뒤 6월 86.8, 7월 84.6 등으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소비자기대지수는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6개월 후 경기나 생활형편 등이 현재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세부 항목별로는 경기에 대한 기대지수가 7월 67.7에서 8월 80.5로 12.8포인트 상승했고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지수도 같은 기간 87.5에서 93.0으로 5.5포인트 올랐다. 소비지출 기대지수는 8월 100.2로 기준치를 웃돌았다.

소비자기대지수는 전 소득계층과 전 연령대에서 전월 대비 큰 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준치 100에는 못 미쳤다. 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의 경기, 생활형편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는 7월 59.2에서 8월에는 68.4로 9.2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자평가지수도 4월 80.0 이후 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오다 8월 들어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경기에 대한 평가지수는 55.4로 7월의

43.5에 비해 11.9포인트, 생활형편에 대한 평가지수는 81.4로 전월의 74.8에 비해 6.6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자산 가치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나타내는 자산평가지수는 주택 및 상가(96.1→97.5), 금융·저축(91.0→93.8), 주식 및 채권(61.4→67.3) 등은 상승했지만 토지 및 임야(96.9→96.8)는 소폭 하락했다. 1년 전과 비교해 현재 가계수입의 변동을 나타내는 가계수입 평가지수는 92.7로 전월(89.3)보다 3.4포인트 올랐다. 또 소비자들은 향후 경기에 영향을 줄 첫 번째 요인으로 '유가 등 물가'(68.3%)를 꼽았고, 이어 '수출·환율'(9.3%), '국내소비'(8.3%) 등도 변수로 지목했다. /연합뉴스

# 해외지출 급증세 한풀 꺾였나

불황·고물가·고환율 영향 상반기 15% 감소

급증세를 이어왔던 가계의 해외지출이 상반기에 15% 줄어들면서 환란후 최대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전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떨어졌다. 이는 경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다 고물가와 고환율이 나타나면서 가계의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8월 한국은행의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계의 해외소비지출액은 7조3천57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9조441억원에 비해 15.3%인 1조4천억원이 줄었다. 해외지출이 감소한 것은 2003년 이후 5년만에 처음이며 감소폭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10년만에 가장 크다.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해외소비 지출액은 외환위기 충격으로 지난 97년 3조4천180억원에서 98년 1조2천626억원으로 63.1% 급감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2002년 4조8천855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었고 2003년에는 카드사태 등으로 인해 4조3천334억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곧바로 급증세로 돌아서 2005년 6조5천452억원, 2006년 8조1천987억원에 이어 작년에는 9조원을 넘었다. 가계의 최종 소비지출에서 해외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1.02%에서 2000년 2.05%, 2004년 3.06%, 2006년 4.53%로 높아졌고 지난해에는 4.80%에 이르렀다. 그러나 올해 해외소



#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카 2010년 3만대 양산 계획

현대·기아차는 "2010년에 하이브리드 양산차 3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며 전용 부품업체의 고용효과는 2천200여명, 생산 유발 효과는 4천200여원에 이를 것"이라고 8일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2018년에는 하이브리드 차종을 50만대까지 양산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한 고용증대 효과는 3만7천여명, 생산유발액은 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수소연료전지차량의 경우 조기 실용

화 시기인 2012년에 1천대를 생산하기로 했고 3만대의 생산량을 목표로 하고 있는 2018년이면 고용증대 9천여명, 생산유발액 1조7천여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현대·기아차는 내다봤다. 또한 수소연료전지차량 100만대 생산이 목표인 2030년에는 8만8천여명의 고용 증대와 16조8천억원의 생산 유발액이 생겨 친환경 차량이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현대·기아차는 기대했다. /연합뉴스



농협추석맞이 직거래장터. 농협전남지역본부는 8일부터 10일까지 광주시 동구청영 KT광장에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개설, 햅쌀과 과일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남영주기자 mjna@kwangju.co.kr

# IPTV(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

# KT·하나로텔레콤·LG데이콤 선정

방송·통신 융합의 상징 IPTV(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로 KT와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이 선정됐다. 그러나 포털사이트 다음이 주도한 오픈 IPTV는 재정적 능력 심사사항에서 기준점수에 미달, 탈락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제29차 회의를 열어 IPTV 제공사업 신규 대상 법인으로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등 3개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달 중 3개 업체가 허가관련 필요서류를 제출하는 대로 허가서를 교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도 빠르면 이달 말 IPTV 시범서비스를 시작해 내달부

터는 분방송이 본격 서비스 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KT는 총점 500점 만점에 421.30점을 얻어 1위에 올랐고 LG데이콤(414.80점), 하나로텔레콤(406.73점), 오픈IPTV(374.50점)가 뒤를 이었다. KT는 부문별 심사에서 '재정적 능력' 항목을 제외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콘텐츠 수급 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 나머지 5개 분야에서 모두 1위를 차지, 업체들 중 가장 짜임새 있는 준비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주식거래 수수료 연말까지 면제

증권사들이 고객들로부터 받는 증권거래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증권업협회 등 증권유관기관들이 증권사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수료를 이달 22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며 "이로 인해 1천억원 이상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증권선물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들이 증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면제해주면 증권사들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 고객들로부터 받는 증권거래 수수료도 추가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증권사들은 연말까지 증권유관기관에 내는 수수료를 면제받게 되는 만큼 고객의 증권거래 수수료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한국 증시 '저평가' 됐다

주가 이익비율, 주요국 증시에 비해 가장 낮아

한국 증시의 주가이익비율(PER)이 주요국 증시와 비교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증권선물거래소가 9개국 대표지수의 PER를 조사한 결과 4일 기준 코스피200지수의 PER는 9.96으로 인도(15.99), 일본(15.52), 미국(15.23)의 2/3 수준에 불과했다. PER는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비율로 수치가 낮을 수록 주가가 저평가됐음을 의미한다. 올해 들어 33% 급락한 중국 상하이중

합지수의 PER는 작년 말 48.80에서 16.05로 급감했으나 여전히 조사 대상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한편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의 PER는 평균 10.62로 미국의 14.83보다 크게 낮았다. 특히 POSCO(8.93)와 국민은행(6.79), 신한지주(8.32), 현대중공업(7.96), SK텔레콤(8.89)은 PER가 10 이하였다. 전체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은 6천395억달러(714조8천109억원)로 미국 시가총액 상위 두 종목의 합계인 6천895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삼성생명	기업보험 전문 컨설턴트(목표법인지정)	초대졸/경력무관	3400~3600	09/10	061-284-3345
하나은행	광주신세계백화점(VIP멤버서비스)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9/11	011-1796-4814
휴먼전자인	인사 및 총무업무 사무원	초대졸/경력3년	2400~2600	09/11	062-600-7522
한양에스엔씨	(해외영업직/경리,회계직) 정규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1	062-382-1311
결룩스	여성외류 관련 고객상담 및 인터넷 쇼핑몰 상품관리	초대졸/경력1년	1400~1600	09/11	062-385-4475
로이골드	귀금속인터넷 쇼핑몰 관리 경리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5	062-236-0324
사이덴탈	정규직 치과병원 영업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5	062-652-7418
H&T	[연2400만원/주5일]SKT 114/CRM상담원	고졸/경력무관	2400~2600	09/16	062-350-6333
한국쌍용회	[주5일근무/내근제]본사직영 남녀 TM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6	062-410-1416
한백정보통신	사무, 전산 고객관리 및 A/S기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8	010-2615-5883
한대하이텍	영업관리/출하검사자/부품생산직 정규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8	062-953-2240
상형서점	경리 및 사무보조 여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9/18	062-523-1717
한성오토텍	현장 기능직 인원 공고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09/18	062-942-6259



<관주코리아 512-6210 제공>

# “구조조정 기업·공적자금 투입 은행 매각때 외자 유치 우선”

전광우 금융위원장 “PF사업장 전수 조사 7개 저축銀 구조조정 진행중”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8일 우리나라의 외화수급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구조조정 기업의 매각과 공적자금 투입 은행의 민영화 때 외국 자본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갖고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해외 투자자금이 국내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완충하기 위해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하반기 정책 우선 순위는 여기에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등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외자를 유치하겠다”며 “시장 여건을 봐서 우리금융주주와 기업은행이 보유한 정부 소유 지분 매각이나 산업은행의 민영화 때 건전한 해외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국민은행이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4조원의 자금을 투입해 자사주 20%를 취득했는데 조만간 재매각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자사주를 재매각해 자본 적정성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해외 자금이 유입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부실화 우려와 관련, “899개 PF사업장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건전성 강화 조치를 할 계획이고 현재 7개 저축은행은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 은행 하반기 채용 잇따라

우리 200명·기업 250명·신한 150명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8월 개인 및 기업고객 영업인력 위주로 신입행원 200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서류전형을 통해 다음 달 16일쯤 서류합격자를 선발한 뒤 1차 면접 및 인·적성 검사, 2차 합숙면접, 3차 임원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해 11월 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250명 내외의 신입행원을 채용키로 하고 이날 이주대를 시작으로 하반기 채용설명회를 시작했다. 기업은행은 올해 처음으로 채

용인원의 20%를 지방 출신에서 뽑는 20% 지방 할당제와 필기시험을 도입했다. 모집분야는 일반분야와 전문분야로 나뉘며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서류를 접수한다. 신한은행은 150명 내외의 신규 채용키로 하고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채용대행사 홈페이지(http://hr.saramin.co.kr/shinhan)에서 원서를 접수한다. 하나은행은 9~10월에 걸쳐 250명 내외의 뽑을 예정이다. 현재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개인금융 관련 업무를 담당할 가계금융직군에 대한 채용을 진행중이며 종합직은 다음 달 채용 예정이다. 외환은행은 이달 중순 100명 이내에서 신입행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다음 달 중 300명 미만을 채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공기업 취업문 좁다

14%만이 '채용 계획'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영향 탓에 하반기 공기업의 채용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8일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공기업 35개사의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하반기에 채용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곳은 14.3%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

간에 조사한 68.5%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다. 특히 채용이 없다고 답한 기업이 37.1%에 달했고, 미정인 기업도 48.6%나 됐다. 설상가상으로 채용규모도 확 줄었다. 채용계획을 밝힌 공기업의 채용인원은 230명으로, 이들 기업이 지난해 하반기 뽑은 770명과 비교해 70.1%나 감소했다. 공기업들이 이같이 채용을 꺼리는 것은 최근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회사의 존재위기에 앞장 선채용에 대해 선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크루트는 풀이했다. /연합뉴스